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37호 [무제 제23189호] 주체99(2010)년 8월 25일(수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의 축산정책 관철에서 모범인 927닭공장을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축산정책관철에서 훌륭한 모범을 창조한 927닭공장을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홍석형동지, 태종수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인민보안부장인 주상성동지, 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리병삼동지와 공장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였다.

어버이장군님을 또다시 공장에 모시고 총성의 보고를 드리는 최상의 영광과 행복을 지니게 된 닭공장의 종업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9년전 9월 공장에 찾아오시어 주신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해마다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 오리사, 돼지사를 새로 건설하고 공장주변에 여러 정보의 파수원을 조성하는 놀라운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능력확장된 이 공장에서는 지금 닭고기, 닭알을 비롯한 축산물생산은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신 다음 울창한 수림속에 아담하게 들어앉은 공장의 내부와 외부를 돌아보시면서 기술장비상태와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상자마다에 차고 넘치는 알뜰 닭들과 콘베어를 타고 쉬임없이 흘러내리는 닭알폭포를 보시고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생산을 급격히 늘인 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근로자, 기술자들이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자체의 사료기지에서 나오는 알곡먹이로 생산을 부단히 높인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당의 축산정책을 빛나게 옹호관철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최고사령관의 특별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산공정의 과학화, 공업화를 훌륭히 실현하였으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는 이 공장의 자랑찬 성과는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숭고한 애국심이 낳은 귀중한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농업과 축산을 다같이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 훌륭한 모범을 창조한 이들의 경험을 모든 단위들에서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현대적인 공장의 특성에 맞게 환경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려 줄

룩한 위생문화적환경을 조성하고 닭배설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많은 오리나 돼지를 기르고있는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간진 일본새를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풍치수려한 산기슭에 한쪽의 그림처럼 펼쳐진 닭공장의 전경을 부감하시면서 이 공장은 위치도 좋고 건설도 질적으로 잘되었을 뿐 아니라 과학화, 집약화의 실현으로 생산성도 대단히 높아 인민들이 실지 그 덕을 보고있는 실리있는 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영양가 높은 부식물을 풍족히 공급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최근년간 도처에 현대적인 가금목장, 돼지공장, 염소목장, 소목장을 비롯한 많은 축산기지가 일떠서 크게 은을 내고있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성과는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우리 식의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927닭공장은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관리운영과 생산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기본임무는 늘어나는 인민들의 생활상수요에 맞게 고기와 알생산량을 더욱 높이고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서는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책임성을 더욱 높여 현대적인

설비들이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금업에서도 생산장성의 예비는 종자문제에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사료를 적게 먹으면서도 빨리 자라고 알날이 많이 높은 우량품종을 적극 받아들이는 한편 종금장들에서 종금생산과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우량한 종자닭들을 계획적으로 증단없이 대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닭공장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사료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공장에서 생산을 끊임없이 높이고있는 중요한 비결의 하나는 자체의 굳건한 사료기지를 가지고있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고리형순환생산체계의 우월성을 계속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축산에서 수의방역사업은 생명과 같으므로 닭공장에서 방역시설들을 충분히 갖추고 엄격한 방역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 더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하자면 현대적기술에 기초한 과학적인 경영체계를 철저히 세워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927닭공장에서와 같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가금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광범히 벌림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이 만난 시련을 헤치며 굳건히 다져온 위력한 주체공업이 거대한 생산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함으로써 지금 우리 조국에는 력사에 일찍이 없었던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나 오랜 세월 바라던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다고 하시면서 승리의 날이 가까와올수록 더욱 분발하여 강성대국의 휘황찬란한 태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오자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앞으로도 높은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발휘하여 생산에서 계속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927닭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도처에 위대한 사랑의 창조물을 일떠세워주시고 은을 내도록 끊임없는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에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기여할 충성의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0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0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24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에는 백전백승의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조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 전변시키시어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떨치시였으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성기를 열어놓

으신 경에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정이 뜨겁게 끓어치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조선로동당기를 배경으로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당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

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모형과 《경축 50돐》이라는 글발이 걸려있었다.

대회장에는 또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무

한히 충직한 선군혁명전사가 되자!》,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선군의 기치따라 영웅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자!》를 비롯한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대회에는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꾼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국을 방분하고있는 해외동포들과 반체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대회에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 최영림동지, 김영춘동지, 리용무동지, 오국렬동지, 전병호동지, 최태복동지, 리영호동지, 김정각동지, 김국태동지, 양형섭동지와 김영태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류미영 원도교정우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위원들, 무력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책임일꾼들, 영웅들, 근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대회는 회세의 정치원로이시며

블세출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혁명의 수뇌부뒤리에 굳게 뭉쳐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참가자들의 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